‘나지’ 늘어 무등산 생태탐방원 산사태 우려 커진다

〈초목 없는 땅〉

5392㎡→6343㎡… 집중호우·강습에 사면침식 반복
환경단체 “기후위기 반영해 선제적 복원 전략 시급”

무등산국립공원 산사태 피해 지역의 나지(초목이 없는 벌거벗은 땅) 면적이 2년 연속 확대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추가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당국이 인공 복원에 나섰지만 사면 침식이 반복되며 복원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립공원공단이 발간한 ‘국립공원 산사태 발생지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사태가 발생한 무등산국립공원 내 3개 지역 중 무등산생태탐방원 일원에서만 나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탐방로와 도로 인근에 위치해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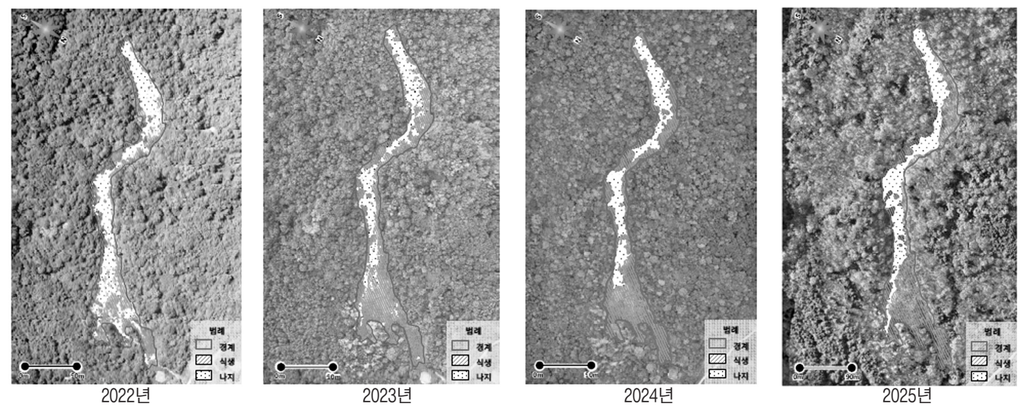
무등산생태탐방원 일원의 식생 면적은 2022년 9846㎡에서 2023년 1만2574㎡로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 1만2353㎡, 2025년 1만1623㎡로 다시 줄어들었다.

반면 나지 면적은 2023년 5392㎡에서 2024년 5613㎡, 2025년에는 6343㎡로 2년 연속 크게 확대됐다.

공단은 이 지역을 ‘식생 면적 감소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식물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한 채 나지가 늘어나는 유형으로, 강우 시 토사가 쓸려 내려가며 산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산림청과 공단은 2022년부터 단끊기, 산돌쌓기 등 사면 안정 공법을 적용해 인공 복원을 진행해 왔지만, 2024~2025년 사이 집중호우와 강우 반복으로 사면 침식이 지속 발생하며 복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등산국립공원 시계열 분석 결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반면 충장사와 증심사 일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충장사 인근 산사태 발생 면적은 150㎡로, 옹벽과 목책 설치 등 복원 작업을 거쳐 지난해 기준 식생 면적 148㎡, 나지 면적 2㎡로 조사됐다. 증심사 인근 역시 식생 면적 478㎡, 나지 면적 20㎡로 사면 안정이 유지되는 ‘보합형’으로 분류됐다.

공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 재분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심사 일원은 단기 모니터링 대상에서 중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되며, 무등산생태탐방원과 충장사 일원은 지속적인 침식과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단기 모니터링을 유지하게 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복원 방식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와 극한 강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 “나지가 확대된 지역은 여름철 이전에 정밀 조사와 선제적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나지 면적이 증가하는 일부 대상지는 추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설 명절 앞둔 떡집 풍경 설 연휴를 사흘 앞둔 11일 나주 영산포 한 방앗간에서 상인들이 떡국에 쓰이는 가래떡을 말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설날에 떡국을 마련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새해 아침의 첫 식사로 떡국을 먹어 왔다. 설날에 기다란 가래떡을 썰어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아내 살해’ 무기수, 사후 재심서 무죄 판결

법원 “핵심 증거 위법하게 확보… 살해 동기 단정 못해”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장동오씨 재심에서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후 20여년 만에 뒤집힌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게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수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살해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 한 저수지 인근에서 화물차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보험금 약 8억원대를 노린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졸음운전 등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 측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시 경찰과 검사, 국과수 감정인, 판사들의 책임이 모두 더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지역 경찰관과 박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나이는 66세였다.

피고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이 사건 재심은 장씨의 사망 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심에서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여제자들 성추행한 전남대 교수 법정구속

재판부 “무고로 몰았다” 질타… 징역 2년 선고

상습적으로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남대학교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식당, 공원 등지에서 교수 신분을 악용해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가 판사로부터 ‘2차 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91호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431-10번지 일원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34	8	국지도로	140	서석동 422-22	지산동 518대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534	8	국지도로	230	서석동 431-10	지산동 518대	일반도로	-	-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534	소로2-534	• 도로 변경 - 폭 : 8.0m → 8.0m - 연장 : 140m → 230m	• 주변 지역 접근성 강화 주민 정주, 여건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2. 12. ~ 2. 26.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동구청 도시공간계획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다. 열람도서 :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

3.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공간계획과 (☎062-608-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중 임시총회 공지

문화류씨좌상공파죽산공종중
문화류씨좌상공파고암공종중

총회일시 :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6 (화정떡갈비)
안 건 : 비농지 종중 환원, 농지 영농조합법인 출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송 청구 건
필 지 : 죽산공종중(광산구 동림동 168 외 23필지)
고암공종중(광산구 동림동 106 외 7필지)

2026년 2월 11일

광남일보가 만드는 사람 · 문화 · 관광중심 월간지
전라도人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나주시 공고 제2026 - 253호

나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및 설명회 개최 열람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나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개발제한구역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남평읍 일원	39.42	감) 0.97	38.45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유곡리, 도산리 일원
다. 사업면적 : 1,191,951㎡(개발제한구역 해제 A=971,531㎡)
라. 시 행 자 : 나주시장

3.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 2026년 2월 12일 ~ 2월 27일(15일간)
나. 공람장소 : 나주시 도시과, 노안면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마.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전략환경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은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바. 제출방법 : 직접, 전자우편(gwg03188@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록

4.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6년 2월 25일(수) 11:00
나. 개최장소 : 노안 농협(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23)

5. 기타사항
가.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및 관계부서 협의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in-point.kr
1%부족함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업 | 3D 영상 · 모델링 / 조감도
옥 · 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 (신안동, 2층)
디에스앤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